

하와이 푸른 하늘에 대회 2연패 꿈 '등실'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최강 군단으로 등장한 '코리아인 파워'가 시즌 두번째 대회에서 우승컵 사냥에 나선다. 오는 23일(한국시간)부터 사흘 동안 하와이주 카플레이의 코올리나골프장(파72·6천519야드)에서 열리는 LPGA 투어 필즈오픈에 한국인 또는 한국계 선수 35명이 출전한다.

작년 이 대회 챔피언 이미나(26·KTF)를 비롯해 준우승자 이선화(21·CJ), 그리고 예비 얼마 한희원(29·힐라코리아), 김미현(30·KTF), 박세리(30·CJ), 장정(27·기업은행) 등 간판 스타들과 홍진주(24·SK), 김승희(19·힐라코리아), 김인경(19) 등 신인왕 후보들이 출출동한다.

작년 챔프 이미나 등 한국선수 35명

23일 LPGA 투어 필즈 오픈 참가

또 2005년 한국여자프로골프 신인왕에 오른데 이어 작년에는 상금랭킹 2위를 차지했던 박희영(20·이수건설)과 지난해 US여자아마추어선수권대회 챔피언인 하와이 교포 김별리 김(16)도 합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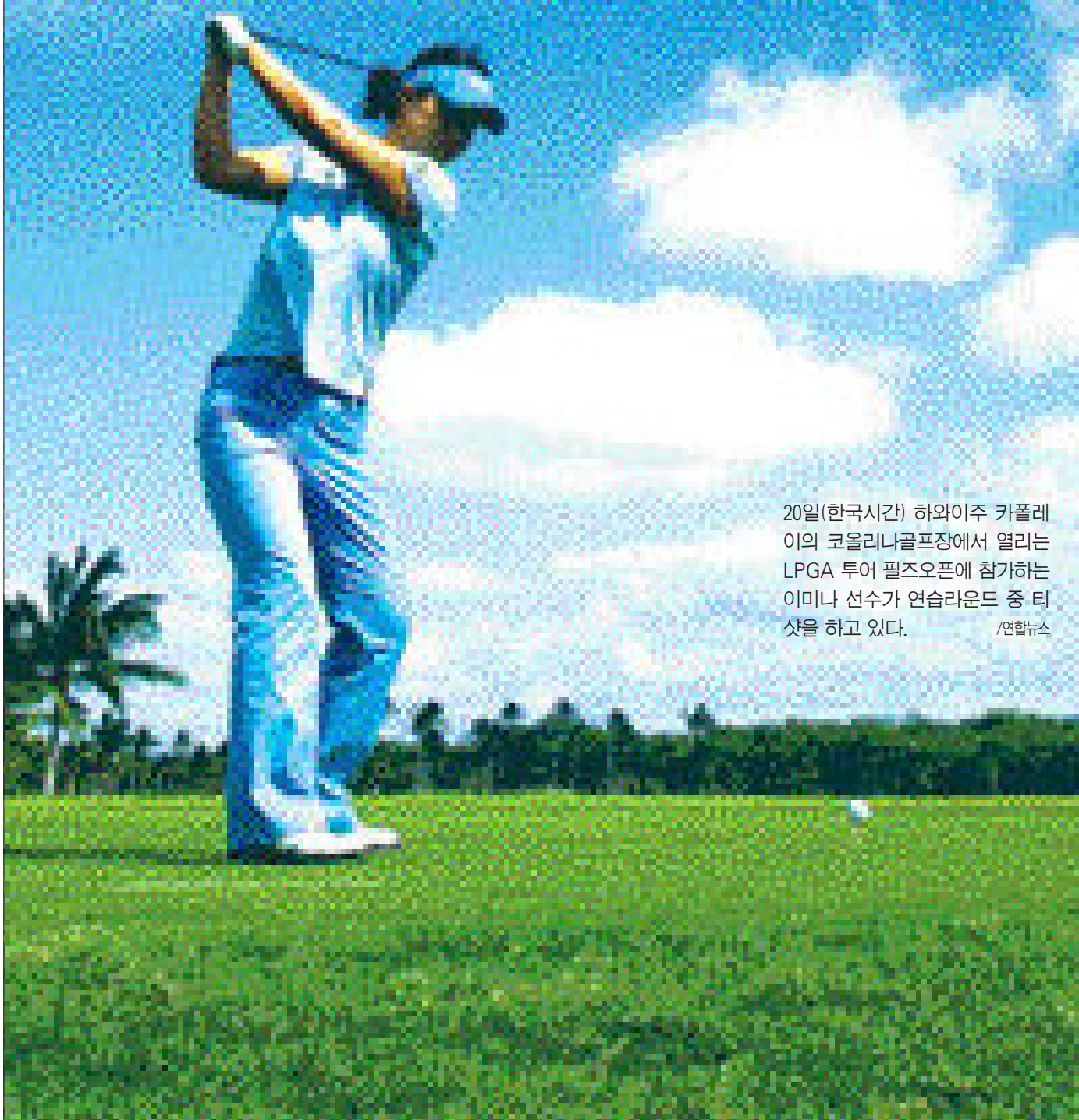
그러나 지난 18일 플라 크리머(미국)의 우승으로 끝난 시즌 개막전 SBS오픈을 통해 윤곽을 드러낸 판도는 한국 선수의 2년 연속 우승은 장담하기 어렵다.

아직 54홀 밖에 치르지 않았지만 작년 최우수선수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와 카리 웹(호주)의 기량이 올해도 가장 강력한 상금왕 후보라는 사실이 새삼 드러난데다 3년차 크리머와 2년차인 홀리에타 그라나다(파라과이)와 모건 프레셀(미국)이 겨우내 독하게 훈련을 쌓았다는 점도 확인됐다.

반면 '한국 군단'은 양적 성장에 비해 파괴력이 떨어진 듯한 모습이다.

49명이라는 엄청난 인원으로 LPGA 투어 평정에 나선 '코리아인 파워'가 개막전에서 보인 기대에 못미친 실적을 이번 대회에서 만회할 수 있을 지 관심사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20일(한국시간) 하와이주 카플레이의 코올리나골프장에서 열리는 LPGA 투어 필즈오픈에 참가하는 이미나 선수가 연습라운드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 KIA 미야자키 전훈 소식

이용규 "타격감 잡았어!"

발목 부상 회복...최상 컨디션 홍백전서 8타수 4안타 4타점

"역시 욕심이 많아!"

지난 5일 일본 미야자키 KIA 스프링 캠프 훈련장. 발목부상으로 1주일 늦게 합류한 이용규(23·외야수·사진)의 프리배팅을 지켜보던 이견열 KIA 타격코치가 만족스런 웃음을 띄었다.

이 코치는 "(이)이용규가 재활기간동안 쉬지 않고 몸을 잘 만들어 온 듯 하다"며 "성실하고 야구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선수"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지난 1월 실시된 국내 합동훈련 도중 오른쪽 발목 부상을 입은 이용규는 같은달 25일 동료들의 일본행을 지켜보아만 했다.

정밀검진 결과 발목 관절에서 떨어져 나온 뼈조각이 발견돼 재활훈련이 요구됐기 때문이다. 이용규는 결국 재활군과 함께 국내에서 2주일간 훈련을 소화했다. 자칫 올 시즌을 접을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다.

KIA 코칭스태프도 이용규의 부상으로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지난해 개인 타이틀인 '최다안타상' 수상과 함께 외야수 부문 골든글러브를 품에 안았던 이용규의 공백은 팀 전력에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투쟁을 열어보니 우려는 '우려'로 끝났다. 이용규가 스프링캠프 합류 후 2차례 참가한 실전경기에서 연속 멀티히트를 기록하는 등 자신의 기량을 맘껏 뽐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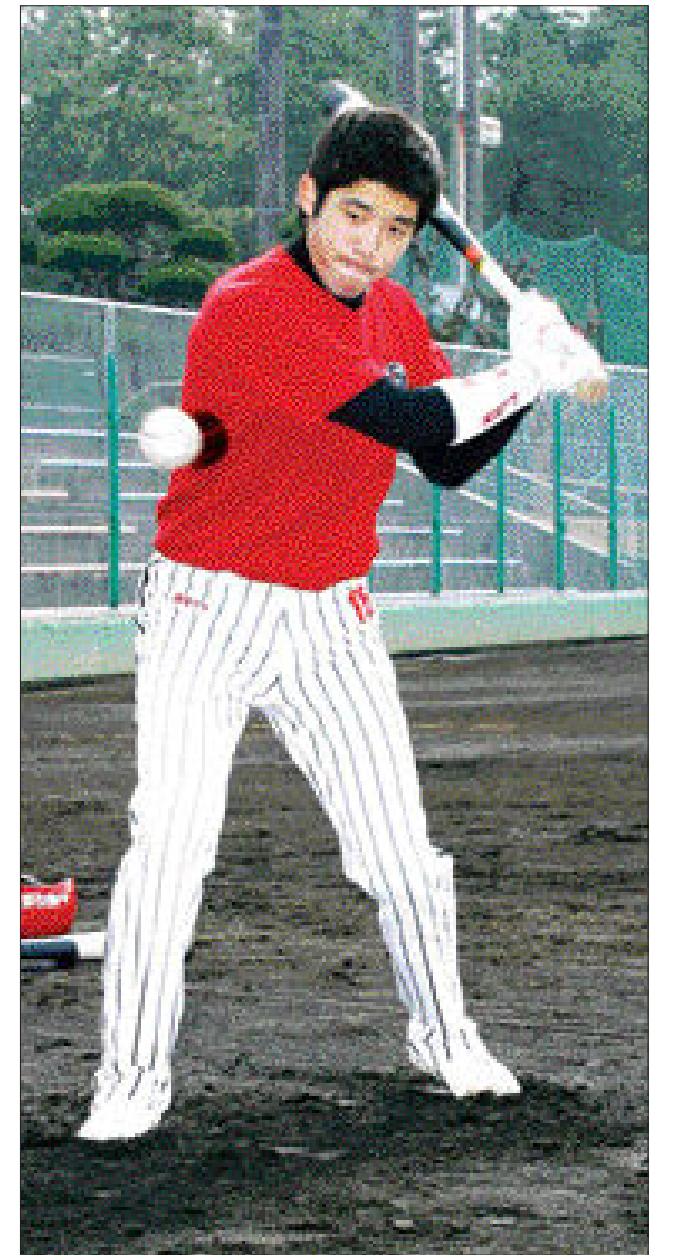
이용규는 지난 19일 열린 자체 홍백전에서 백팀 톱 타자겸 중견수로 출전해 4타수 2안타를 기록하며 팀의 5-2 승리를 이끌었다.

첫 타석에서 좌전안타를 치고 나가 득점에 성공한 이용규는 4회에는 우전안타로 2루에 있던 권윤민을 홈으로 불러들이며 득점권 타격에 여전히 강한 면을 보였다.

4번째 타석인 5회에는 1사 만루에서 좌익수 희생플라이로 타점을 1개 보냈다. 4타수 2안타 1득점 2타점. 이용규는 지난 15일 홍백전에서도 똑같이 4타수 2안타(1볼넷) 1득점 2타점을 기록했다.

이용규는 이날 주루 플레이에서도 '발목 이상 없음'을 알렸다. 1회 안타로 출루한 이용규는 2번 손지환의 내야땅볼 때 2루까지 진루한 뒤 홍세완의 좌전 적시타 때 홈까지 전력 질주해 1득점을 올렸다.

이용규의 부상을 걱정했던 코칭스태프도 답답한 마음을 털어냈다.



서정환 KIA 감독은 "부상 때문에 걱정했는데 (이)이용규가 너무도 잘해주고 있다"면서 "하지만 언제 재발할 지 모르는 게 부상이다.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훈련 스케줄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2년 연속 골든글러브 수상이 목표라는 이용규는 "동료들보다 조금 늦게 훈련에 참가했지만, 지난해와 비슷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 배팅 감각도 좋고, 발목도 정상으로 돌아왔다"면서 "올 시즌도 부상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양용은 PGA 데뷔

내일 월드골프챔피언십 출전

'야생마' 양용은(35·테일러메이드)이 드디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 데뷔한다. 양용은은 오는 22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투산의 갤러리골프장 남코스(파72·7천351야드)에서 열리는 월드골프챔피언십(WGC) 악센추어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에 출전한다.

세계랭킹 순으로 64명이 출전하는 악센추어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은 총상금 800만달러에 우승 상금이 140만달러에 이르며 1회전에서 탈락한 선수에게도 3만달러가 넘는 상금이 주어진다.

올해는 세계 64강 가운데 60위 칼 스와켈(남아공)만 불참해 세계랭킹 65위인 J.J. 헨리(미국)까지 출전권이 돌아갔다.

세계랭킹 30위 자격으로 초청을 받은 양용은은 투어 카드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번 대회에서 상위권 입상을 버리고 있다.

1대1 맞대결로 승부를 가리는 매치플레이 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대진운은 썩 좋지 않다.

1회전 상대인 로드 펄링(호주·세계 35위)은 PGA 투어에서 2승을 올렸다고 하지만 장타력이나 아이언 플레이 등에서 양용은을 압도할 실력은 아니다.

이 대회에 5년 연속 출장하는 '탱크' 최경주(37·나이키골프)의 각오도 남다르다.

2003년 단 한차례 2회전에 올랐을 뿐 2004년부터 3년 연속 1회전에서 나가 떨어졌던 최경주는 1회전에서 카를 페테르손(스웨덴·세계41위)을 맞아 4년 만에 2회전 진출을 노린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찬호 5선발"

'뉴스데이'지 예상

미국프로야구 뉴욕 메츠에 새 동지를 둔 박찬호(34)가 5선발 투수로 굳어지는 분위기가 다.

뉴욕 지역 일간지 '뉴스데이'는 20일(한국시간) 인터넷판에서 올 시즌 메츠 선발진의 윤곽을 가늠할 수 있는 분석 기사를 실고 박찬호가 선발 투수로 개막전 로스터에 포함될 확률을 7대1로 내다봤다.

이 신문은 '외계인' 페드로 마르티네스가 지난해 어깨 수술로 7월까지 합류가 힘든 상황에서 윌리 랜돌프 감독은 톰 글래빈과 올랜도 에르난데스 두 베테랑 투수를 1, 2선발

로 기용할 계획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나머지 3~5선발 투수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다"는 랜돌프 감독의 계획을 전하면서 박찬호가 선발 자리를 당당히 따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데이'는 지난해 포스트시즌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존 페인과 지난해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개막전 선발 투수로 나선 던 윌리엄 페레스가 3, 4선발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선발될 확률 확률은 각각 2대1과 5대1이다.

박찬호는 이들보다는 낮지만 호르헤 소사(15대1), 에런 실리(20대1) 등 경쟁 후보들보다는 높은 7대1의 확률을 얻었다.

현대 유니콘스 급여 자체 재원으로 충당

운영난을 겪고 있는 프로야구 현대 유니콘스가 올시즌 첫 급여일인 25일을 자체 재원으로 무사히 넘길 전망이다.

김용휘 현대 사장은 20일 "현재까지 외부 지원은 없지만 지난 해 예산에서 이월된 자금이 있기 때문에 2월 급여를 지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현대 선수단 및 프런트의 2월분 총급여는

9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가 선수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선수에 대한 보유권한을 상실해 사실상 구단이 해체되기 때문에 상당한 우려를 자아냈으나 일단 급한 불은 끈 셈이다.

그러나 김용휘 사장은 "선수단의 첫 달 급여는 마련했지만 나머지 경비는 최소한 줄이고 있는 상태다. KBO가 하루 빨리 건설한 인수자를 찾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달 농협중앙회에 현대 매각을 추진하다 실패했던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현재 3개 기업과 매각을 제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